

지역 매아리

권익현 부안군수,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신속집행 철지"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철지를 강조했다.



권 군수는 14일 열린 주요업무보고회에서 "각 부서별로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며 "연말 예산집행 실적현상을 방지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재정집행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권 군수는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의 기본이 되는 성장동력으로 인구증가 효과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며 "기업유치와 함께 각 부서에서도 사업추진 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30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가 오는 28일까지 열린다"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지리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보건소, '건강증진 신체운동교실' 강사 모집

정읍시가 '시민건강증진 신체운동교실' 프로그램 전문강사를 모집하고 있다.

'시민건강증진 신체운동교실'은 경로당과 진료소 등 생활공간에서 신체활동을 돕는 운동 실천 프로그램이다.

앞서 시는 지역 내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어르신의 근력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기획한 바 있다. 강사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우편과 팩스 신청은 불가하다.

모집 인원은 대략 40명으로 인력 풀(pool)제 운영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노인운동 지원 사업에 적합한 운동 관련 국가공인 자격 소지자 또는 민간자격 소지자이면서 유경험자이다. 또,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읍시인 자는 우대한다.

시 관계자는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신체운동교실 프로그램이 실력 있는 강사 모임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더욱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같이 뒹은 실력 마음껏 '뽐뽐'

정읍시, 19일 연지아트홀 일원서 평생학습축제·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정읍시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연지아트홀 일원서 제14회 정읍 평생학습축제와 제6회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평생학습, 화(學)·이(易)·시(時)·습(習)·지(之)'를 주제로 개최된다.

19일 오전 9시에 시작되는 이번 행사는 '휘날레' 색소폰 동아리와 '차차원 댄스'의 식전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시 서부복지센터의 댄스 공연 등 15개 팀의 평생학습동아리 발표회와 초산동 '댄스홀릭' 등 10개 주민자치프로그램의 발표회가 진행된다. 이날 발표회에서 수강생들은 그동안 다져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예정이다.

또, 연지아트홀 광장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27개 단체가 참여해 홍보·체험부스를 운영한다.

가족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특히 청소년에게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 통해 학교에서는 접해보지 못했던



정읍시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연지아트홀 일원에서 제14회 정읍 평생학습축제와 제6회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한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으로 ▲20일 국가무형문화재 제18호 봉산탈춤 공연 ▲키다리 뽀에로 풍선 마임 ▲인생사진관 ▲전통놀이 ▲드론 축구존 ▲로봇 체험존 등을 준비했다.

상설전시로는 정읍문해교육회에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어르신

들이 한글문해교육시간을 통해 배워왔던 내용을 시화작품으로 만들어 보여주는 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한편, 평생학습축제는 지난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로 14회째 이어지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정읍시보건소는 오는 28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무료 접종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초기 혼합 방지와 안전한 접종을 위해 연령별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만75세 이상 어르신(1944년 이전 출생)은 10월 15일부터, 만65세 이상(1954년 이전 출생)은 10월 22일부터 의료기관에서 먼저 접종할 수 있다.

또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은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올해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총 56개소이

며,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a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는 겨울이면 찾아오는 불청객으로 흔히 '독한 감기' 정도로 오해하기 쉽지만 인플루엔자와 일반 감기는 원인도 증상도 전혀 다르다.

고열과 근육통 증상을 동반하며 폐렴과 뇌염 등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훨씬 크고 호흡기로 전파돼 다른 사람에게 옮길 위험도 크다.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6개월 정도 면역력이 지속되

기 때문에 유행 시작 전인 10~11월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

시는 기초생활 수급자 1·2종 중 고등학교 이하·50세 이상,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수용인, AI 대응 요원 등에 대해서도 보건기관에서 10월 30일 무료 접종을 시행한다.

정읍시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일반시민의 경우 10월 31일부터 유료접종도 시작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예방접종을 통해 인플루엔자 유행률을 낮추고 질병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시민들의 건강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사항은 정읍시보건소 ☎539-6118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지역주민과 함께 '나눔 축제의 장' 마련

정읍시는 오는 18일 태인면 피향정 문화센터에서 지역 내 농촌 마을 주민들과 전북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함께 하는 나눔 재능 나눔 축제를 개최한다.

농촌재능나눔사업은 '1% 재능 나눔으로 101% 행복마을 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대학생들의 전문지식과 재능을 고령화된 농촌 마을 주민에게 나누어 주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북과대학과 교직원봉사대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성집합 예방교육과 구강검사, 시력검사, 이·미용 서비스, 행복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과대학과 방송연예미디어과 이만세 교수의 재치 있는 사회와 정읍시립농악단의 흥겨운 식전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농촌재능나눔축제가 지역주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나눔의 장을 만들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재능나눔축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지자체 농촌 재능나눔 활동지원'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행사다.

정읍=김대환 기자

'모두가 즐기며 배우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 평생학습도시 지정 동판·증서 획득 종합발전계획수립·전문인력 확충 등 노력 결실

고창군이 2019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동판을 전달받고, 100세 시대에 걸맞은 평생교육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고창군은 14일 오후 서울시 양재 eT센터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전'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동판 및 증서를 수여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생학습도시 동판 및 증서 수여식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했다. 전북 고창군을 비롯해 서울 성동구, 부산 동래구,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광주시, 경기 하남시, 전남 해남군 등 7개 도시가 올해 신규로 지정됐다.

고창군은 평생학습 조례제정, 전문인력 확충,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연차적으로 노력해 왔다.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농촌환력 CEO프로그램 운영, 시니어스독창출 프로그램 운영, 문해교육사 양성을 통한 찾아가는 문해교

육 실시 등 평생학습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대폭 늘렸다.

여기에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등 군민이 생활속에서 평생학습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마을단위 평생학습 활성화 위한 프로그램도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재생 리더 '농부명장' 양성, 한반도 첫 수도 역사 생태 프로그램 운영 등 군민 스스로 평생학습을 기획하고, 지역주민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평생학습 모인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통해 모든 군민이 언제, 어디서 원하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요구에 맞는 활발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민의 특성화된 사업 추진으로 군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이 부안마케팅농조합법인과 함께 양파 168톤을 대만에 수출했다.

부안농산물 해외수출 결실 맺어

양파 168톤 대만 수출... 지난 8월 베트남 72톤 이어 총 240톤 판매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부안농산물의 해외시장 관료개척을 위해 부안마케팅농조합법인(대표 임장섭)과 함께 부안양파 168톤(8400방/20kg기준)을 대만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부안양파의 대만 수출은 11일까지 168톤의 실적을 올렸으며 시장 여건을 감안해 하반기에도 부안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할 계획이다.

특히 부안군은 지난 8월 양파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베트남에 부안양파 72톤을 수출

하는 등 올 들어 부안양파 240톤을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1일 선적식에는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부안군의원 전원이 참석해 부안양파의 대만 수출을 축하했으며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선적은 올해 두 번째 양파 수출로서 부안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더 많은 세계시장에 알리고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featuring product images, promotional text, and gift set options.